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Oct; 11(10): 181-187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진로결정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권은경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The Effects of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Competence

Eun-Kyoung Kwon
Dept. of Education, Kyung 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결정효능감의 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대학생들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대학의 진로 지도의 방향 설정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창원시 소재 K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의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우선 대학생 진로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이 적용받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결정효능감수준이 향상되었다. 진로결정효능감 변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 진로결정효능감 전체에 대하여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요인으로서는 계획수립, 자기평가의 변화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주제어 : 진로상담프로그램, 진로결정효능감, 진로지도, 진로상담, 진로발달

Abstract In this study,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efficacy through group counseling program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in the future career development of students and the university's career guidance aims to be the basis of the direction of the setting. Verification results first college career counseling program has not been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level of efficacy was improved career decision. Change of career decision-efficacy between groups T-test results shall not be liable for the entire career decision efficac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that factors For a detailed planning, self-evaluation of the results showed no significant changes.

Key Words : Career counseling, career decision competence, career guidance, career counseling, career development

1. 서론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며, 성숙한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닦아야 하는 시기이다. 대학생들의 발달과업과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은 대학생 시기에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 과업을 강조하고 있다[10].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생의 진로 선택에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Received 17 July 2013, Revised 14 August 2013
Accepted 20 Octo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Eun-Kyoung Kwon(Kyung Nam University)
E-Mail: cantatas@daum.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t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역할을 하고 있다.

Bandura(1977)는 특수적 자기효능감 가운데 진로결정효능감이 개인의 진로와 경력을 개발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다[1].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5], 진로에 대한 고민과 갈등에 직면한 개인에게 있어 향상시켜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학생은 진로결정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그들의 진로발달과업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로결정효능감의 증진은 대학생들의 발달과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생 시기의 진로결정효능감의 증진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진로상담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기인하여 진로결정 효능감 증진을 위한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전후의 효과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결정효능감의 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대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학생의 진로상담 방향모색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진로결정효능감의 개념

진로결정효능감 이론은 1980년대 초반에 Hackett와 Betz(1981)이 진로발달 이론에 자기효능감 이론을 접목시킨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들은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과 직업적 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진로결정효능감과 진로결정 관련 과제 수행의 관계는 앞에서 제시한 자기효능감과 과제수행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진로결정효능감의 수준이 낮은 개인은 진로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나 행동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진로결정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개인은 이러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과제와 행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그러한 과제에 참여하는데 소극적이고 그 결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에 필요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5].

진로결정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결정에 적용한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된다[5]. 그리고 이현주(2000)는 진로결정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전공이나 직업의 선택과 같은 진로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지각을 의미한다고 했다[4].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정의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로결정 능력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진로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변인으로 진로성숙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진로결정효능감 관련연구

이은경(2001)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증가하며, 특히 대학진학이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 중 목표선택 효능감이 진로태도성숙을 예언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였으며 진로결정효능감은 남녀 모두에게서 자기조절효능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형성에 자기조절 효능감 뿐만 아니라 학업자신감과 학업 자기조절 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과 학업성취 수준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3].

유지선(2004)은 여대생의 진로미결정,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미결정과 애착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부애착, 동료애착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모애착과 진로미결정에서는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즉, 애착은 직접적으로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이 더 컸다[6].

김수리(2004)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부모의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인간의 관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8].

이상희(2005)의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장애의 모든 하위변인에 대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집단과 여학생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진로장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진로장애 연구에서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7].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진로결정효능감 차이 검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진로결정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직업정보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목표설정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계획수립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문제해결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시 후 자기평가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대상 및 동질성검증

〈Table 1〉 Corresponding sample statistics

		N	Mean	S.D	t	p
collecting ccupational information	E.G	17	3.38	0.42	0.945	0.352
	C.G	17	3.21	0.59		
goal setting	E.G	17	3.54	0.40	0.986	0.332
	C.G	17	3.40	0.44		
planing	E.G	17	3.48	0.51	0.366	0.717
	C.G	17	3.42	0.42		
problem solving	E.G	17	3.44	0.46	0.077	0.939
	C.G	17	3.42	0.43		
self-evaluation	E.G	17	3.47	0.47	0.303	0.764
	C.G	17	3.42	0.43		
Total	E.G	17	3.46	0.35	0.735	0.468
	C.G	17	3.38	0.32		

E.G : Experimental group, C.G : Control group.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의 실시와 효과검증을 위해 창원시에 소재한 K대학교의 대학생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 3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17명씩 무선 배치하였다. 그 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차이를 검증하기에 앞서 프로그램의 시행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심리 변인이 동질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진로결정효능감과 하위요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모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3.2 측정도구

진로결정효능감의 척도는 Betz와 Voyten(1997)이 구성한 진로결정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 - Making Self - Efficacy Scale - Short Form : CDMSES - SF)를 이은진(2001)이 9점척도로 타당화 시킨 것을 5점척도로 수정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5개의 하위영역에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번째 하위척도는 자기평가로 자신의 능력과 흥미, 가치에 대한 이해 정도를 나타낸다. 둘째, 직업정보수집척도는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 고용경향 등의 구체적인 정보수집에 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셋째, 목표설정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 분야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넷째, 계획수립은 진로목표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취업관련 절차들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은 진로와 관련한 힘든 상황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아주 그렇다'에 이르는 구간에 자신의 상태를 표시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며, 하위척도는 해당문항의 점수들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Betz와 Voyten(1997)은 신뢰도 계수를 하위척도인 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에 대해 각각 .71, .78, .83, .77, .69로, 전체 점수에 대해서는 .93으로 보고하였다. 이은진(2001)이 보고한 단축형의 25문항 합산 점수의 신뢰도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Table 2〉 Scale

	Count	Number	Cronbach'α
collecting ccupational information	5	1,10,15,19,23	.78
goal setting	5	2,6,11,16,20	.83
planing	5	3,7,12,21,24	.77
problem solving	5	4,8,13,17,25	.69
self-evaluation	5	5,9,14,18,22	.71
Total	25	1-25	.93

3.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 후의 진로결정효능감의 효과검증을 위한 연구이다. 우선 동질성 검사를 통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확보여부의 확인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실시 후의 효과를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실험집단의 경우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효과검증을 행하였다.

O1 X O2
O3 O4

O_1 , O_3 : 사전 검사
O_2 , O_4 : 사후 검사
X : 실험처치(대학생 진로상담프로그램)

3.3.1 사전검사

본 연구의 차이검증을 위한 자료를 얻고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진로결정효능감 검사를 프로그램 1회기를 진행하기 전에 실시하였다.

3.3.2 프로그램 실시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을 17명으로 구성된 단일집단으로 운영하였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시행은 2012년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회기당 120분간 주 3회 4주에 걸쳐 총 10회기 과정으로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3.3.3 사후검사

본 연구의 효과검증을 위한 자료를 얻고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진로결정효능감검사를 프로그램 10회기를 모두 진행 한 후 실시하였다.

3.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Windows용)을 이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심리적인 변인 측정 결과의 차이 및 변화를 알아보았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대학생진로상담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진로결정효능감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점수 변화를 반복 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4. 실증분석

4.1 가설 1의 검증

가설 1의 검증을 위하여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진로결정효능감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이 수행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점수의 변화와 변량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Hypothesis of the results of 1

	SS	*DF)*	MS	*F*	*p*
Between-Subjects factor					
Group(Experiment /Control)	.737	1	.737	3.352	.076
Error	7.038	32	.220		
In-Subjects factor					
Time(before/after)	.672	1	.672	32.833	.000
Time×Group	.259	1	.259	12.674	.001
Error(time)	.655	32	.020		

<표 3>의 변량분석을 통해 집단 간 진로결정효능감 점수의 변화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검사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화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12.674, p=.001).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즉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실시 후 실험집단의 진로결정 효능감은 증가하였으므로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진로결정효능

감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4.1.1 가설 2의 검증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본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진로결정효능감의 직업정보수집의 변화 및 변화량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 Hypothesis of the results of 2

	SS	*DF*	MS	*F*	*p*
Between-Subjects factor					
Group(Experiment/Control)	.941	1	.941	2.395	.132
Error	12.576	32	.393		
In-Subjects factor					
Time(before/after)	.849	1	.849	14.567	.001
Time×Group	.085	1	.085	1.453	.237
Error(time)	1.866	32	.058		

<표 4>의 변량분석을 통해 집단 간 직업정보수집 점수의 변화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검사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F=1.453, p=.237).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상담프로그램 실시 기간인 4주 동안의 정보수집의 변화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상담프로그램의 기간을 길게 했을 때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1.2 가설 3의 검증

가설 3의 검증을 위해 본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진로결정효능감의 목표설정의 변화 및 변화량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의 변량분석을 통해 집단 간 목표설정 점수의 변화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검사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화가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F=1.778, p=.192). 따라서 가설 3는 기각되었다. 이 결과 또한 4주간의 프로그램 실시로는 목표설정 자체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Hypothesis of the results of 3

	SS	*DF*	MS	*F*	*p*
Between-Subjects factor					
Group(Experiment/Control)	.941	1	.941	2.574	.118
Error	11.699	32	.366		
In-Subjects factor					
Time(before/after)	1.139	1	1.139	13.444	.001
Time×Group	.151	1	.151	1.778	.192
Error(time)	2.711	32	.085		

4.1.3 가설 4의 검증

가설 4의 검증을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진로결정효능감의 계획수립의 변화 및 변화량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 Hypothesis of the results of 4

	SS	*DF*	MS	*F*	*p*
Between-Subjects factor					
Group(Experiment/Control)	1.139	1	1.139	3.020	.092
Error	12.066	32	.377		
In-Subjects factor					
Time(before/after)	.529	1	.529	13.333	.001
Time×Group	.680	1	.680	17.126	.000
Error(time)	1.271	32	.040		

<표 6>의 변량분석을 통해 집단 간 계획수립 점수의 변화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검사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화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F=17.126, p=.000). 따라서 가설 4은 채택되었다.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실시 후 계획수립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수 있다.

4.1.4 가설 5의 검증

가설 5의 검증을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진로결정효능감의 문제해결의 변화 및 변화량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7〉 Hypothesis of the results of 5

	SS	*DF*	MS	*F*	*p*
Between-Subjects factor					
Group(Experiment/Control)	.212	1	.212	.583	.451
Error	11.656	32	.364		
In-Subjects factor					
Time(before/after)	.099	1	.099	1.904	.177
Time×Group	.170	1	.170	3.256	.081
Error(time)	1.671	32	.052		

<표 7>의 변량분석을 통해 집단 간 문제해결 점수의 변화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검사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화가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F=3.256, p=.081). 따라서 가설 5는 기각되었다. 문제해결을 위한 기간으로 보다 세부적인 상담 프로그램의 보완이 이루어지면 효과적인 변화를 유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1.5 가설 6의 검증

가설 6의 검증을 위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진로결정효능감의 자기평가의 변화 및 변화량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8〉 Hypothesis of the results of 6

	SS	*DF)*	MS	*F*	*p*
Between-Subjects factor					
Group(Experiment/Control)	.680	1	.680	2.100	.157
Error	10.362	32	.324		
In-Subjects factor					
Time(before/after)	1.139	1	1.139	11.305	.002
Time×Group	.398	1	.398	3.947	.05
Error(time)					

<표 8>의 변량분석을 통해 집단 간 자기평가 점수의 변화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검사시기와 집단 간 상호작용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변화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F=3.947, p=.05). 따라서 가설 6은 채택되었다.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실시로 인하여 자기평가 점수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실시가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검증결과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이 적용받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진로결정효능감 수준이 향상되었다. 진로결정효능감 변화량의 집단간 T-test 결과는 진로결정효능감 전체에 대하여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요인으로서는 계획수립, 자기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문제해결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 실시 후의 학생들의 진로결정효능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에서는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하여 지속적인 진로지도를 행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향후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며 이를 토대로 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이를 꾸준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과제를 대학당국과 교육당국은 참고하여 대학생의 진로상담 방향의 기초를 수립하고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전략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pp. 191-215, 1997.

[2] Betz, N. E., & Voyten, K. K.,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xide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pp. 179-189, 1997.

[3] E. K.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Ph.D. dissertation,

Ehwa womens University, 2001.
[4] H. J. Lee, Career decisions of university students differ according to the level of cognitive styl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8, pp. 235-257, 2000.
[5] Hackett, G., & Betz, N. E.,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pp. 326-339, 1981.
[6] J. S. Yoo,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decision and attach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female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2004.
[7] S.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5.
[8] S. R. Kim, Th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icision-making self-efficas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Ph.D.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2005.
[9] Y. J. Lee, Effects of career-planning group counseling for multipotential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01.
[10] Zunker, V. G..,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6th ed.). New York: Brooks/Cole, 2002.

권 은 경(Kwon, Eun-Kyoung)

・2000년 2월 : 경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2013년 2월 : 경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2006년 9월 ~ 현재 :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2006년 9월 ~ 현재 : 창원문성대 유아교육과 강사

・관심분야 : 교육심리, 상담
・E-Mail : cantatas@daum.net